

바흐와 현악기들

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

Bach와 현악기들

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Bach는 현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가장 많이 접하는 작곡가이다. Bach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무반주 작품인 <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>와 <첼로를 위한 6개의 조곡>은 현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시험과 콩쿠르, 또는 오케스트라 오디션 곡으로 요구되어왔다. 학생들이 이 작품들을 마주하는 게 익숙할수록 이 음악은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구체적인 관찰이 필요하다.

짧은 역사적 관점

<첼로를 위한 6개의 조곡>과 <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>는 모두 현악기를 위한 독주곡이 덜 발달되었던 1720년경에 작곡되었는데, 아마도 Bach는 단선율의 악기가 독주로 거대한 구성과 굉장히 다채로운 선율, 화성, 리듬을 가지는 것에 매료되어 작품을 작곡하는데 도전했다고 생각한다. Bach를 엄격하고 진지한 노인의 이미지로만 생각했다면 이 작품들이 지혜로움의 산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Bach가 이 작품을 작곡했을 때의 나이는 불과 35세였고, 젊음의 열기와 끝없는



상상력이 있었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. 이 곡은 작곡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복잡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언제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. 이는 끝없는 상상력을 가진 작곡가인 Bach가 모든 악장에 단 한 번의 반복도 없이 각자 스스로의 성격과 개성을 부여하는 데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.

Bach와 악기들

Bach가 그 당시에 아마도 직접 연주했을 바이올린 군의 현악기는 19세기동안 현의 재료, 활의 형태, 악기 자체의 내부 구조 등이 힘을 더 얻기 위해 변화했다. 현대의 기술은 그가 알고 있었던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으므로, 그때의 기술을 흉내 내지 않더라도 Bach가 그 작품들을 작곡하는 동안 염두에 두었던 음악적인 의도, 언어, 소리의 의미와 아티클레이션을 이해하고 상상하기 위해서는 그때 연주되었던 악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. 물론 그런 악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주의 깊게 녹음을 듣고 훌륭한 바로크식 연주자들(예를 들자면 첼리스트 Anner Bylsma, Christophe Coin과 바이올리니스트 Midori Seiler와 Amandine Beyer)의 영상으로 테크닉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 레파토리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.

근원(the sources)

오늘날에 이 작품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악보는 매우 다양하다. "원본" 악보를 사용하거나 위대한 연주자들의 펑거링과 보잉이 표시된 다양한 악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. Bach가 직접 남긴 <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>는 쉽게 자필 복사본을 구할 수 있지만 <첼로를 위한 6개의 조곡>은 Bach가 직접 남긴 원본 초고가 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데, 유일한 필사본으로 Bach의 아내인 Anne Magdalena가 남긴 것과 Bach의 생전에 작품들을 직접 보았던 음악가들이 남긴 것을 Henle와 Baerenreiter 같은 편집자들이, 이 훌륭하고 감격스러운 작품들을 최대한 Bach의 원본과 비슷하도록 편집해냈다. 비올리스트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, 이런 편집본들은 비올라를 위한 사본이 아니며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Billaudot의 편집본을 꼽을 수 있다.

만약 악보에 많은 다이내믹 지시들(crescendo, fp)과 아티클레이션(악센트나 스타카토)이 표시 되어있다면 이러한 지시들은 Bach가 직접 남긴 것이 아니라(당대에는 이러한 표시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다) 편집상의 매우 주관적인 기호들이며, 편집자의 개인적인 해석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. 그러므로 연주할 때에는 이런 지시들과 거리를 두고, 그 지시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해석과 어울리는지 스스로 생각해 지시를 가능한 참고로 받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과 작품 그 자체 사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Bach를 공부한다는 것

Bach의 무반주 작품을 배우는 학생은 서로 반응하는 다른 소리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독주 악기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면서 본질적으로 완전한 음악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. 화음이 존재하지 않는 단선율의 곡에서도 음악의 폴리포닉 때문에 각 작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악보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, 화음, 불협화음, 화성리듬을 관찰하면서 프레이즈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.

Bach는 <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>와 <첼로를 위한 6개의 조곡>을 프렐류드를 제외하고는 춤곡으로 작곡하였기에 각 춤곡의 성격과 박자, 강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. Bach의 음악에서 아티클레이션은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여 음악이 스스로 노래할 수 있도록 보잉과 보우 스트로크를 선택하는 것은 이 음악의 표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. Bach가 직접 <첼로를 위한 6개의 조곡>에 남긴 보잉을 그대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작품에 드러나는 Bach의 개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잉이 어떤 것인지, 펑거링과 개방현의 사용, 그리고 활의 속도까지 전부 고민해야 한다.

Bach와 기교

대부분의 학생들은 테크닉 적으로 아주 어려운 작품들을 마주하게 되는데(바이올리니스트들은 자주 <푸가>를, 비올리스트들은 <첼로를 위한 6개의 조곡>을 연주해야 한다. 그리고 원래 <첼로를 위한 6개의 조곡>은 5개의 현을 가진 악기를 위해 작곡되었다) 이런 곡들을 접할 때, 손가락을 빠르고 민첩하게 돌리는 데에만 신경 쓰는 것은 위험하다. 물론 테크닉을 발전시키는 것은 연주자로서 도움이 되겠지만 이 작품의 음악적인 내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.

해석

Bach의 작품들이 작곡된 것은 3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. 그리고 이런 해석의 다양성은 Bach의 음악을 무척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어떤 해석은 다른 방식보다 더 애정 어린 방식이기도 하고, 어떤 해석은 역사적 해석에 충실하기도 하며, 매우 표현적이고 서정적인 해석도 있다. Bach를 해석할 때 단 하나만의 올바른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.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 들었던 음악과 정반대의 해석이라 해도 무척 다른 해석들을 즐길 수 있다. 연주자가 Bach의 음악에 존경을 담아 성실하고 지혜롭게 연주한다면 연주자의 해석은 매우 설득력을 얻게 된다. Maxim Vengerov, Isabelle Faust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나 Clara-Jumi Kang, cellists like Pieter Wispelwey or Jean-Guihen Queyras 같은 첼리스트들은 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상력을 가진 훌륭한 현대적 해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. ㉞